

항공운송 동향분석

'2010년 상반기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한국항공진흥협회 기술정보실



2010년 상반기 항공운송동향 및 분석

〈목차〉

요약

I. 2010년 상반기 항공 수송실적 분석	1
국제여객	1
국내여객	4
항공화물	6
II. 2010년 상반기 항공 핫이슈	8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8
저비용항공사들의 약진	10
III. 〈참고표〉 반기별 항공수송실적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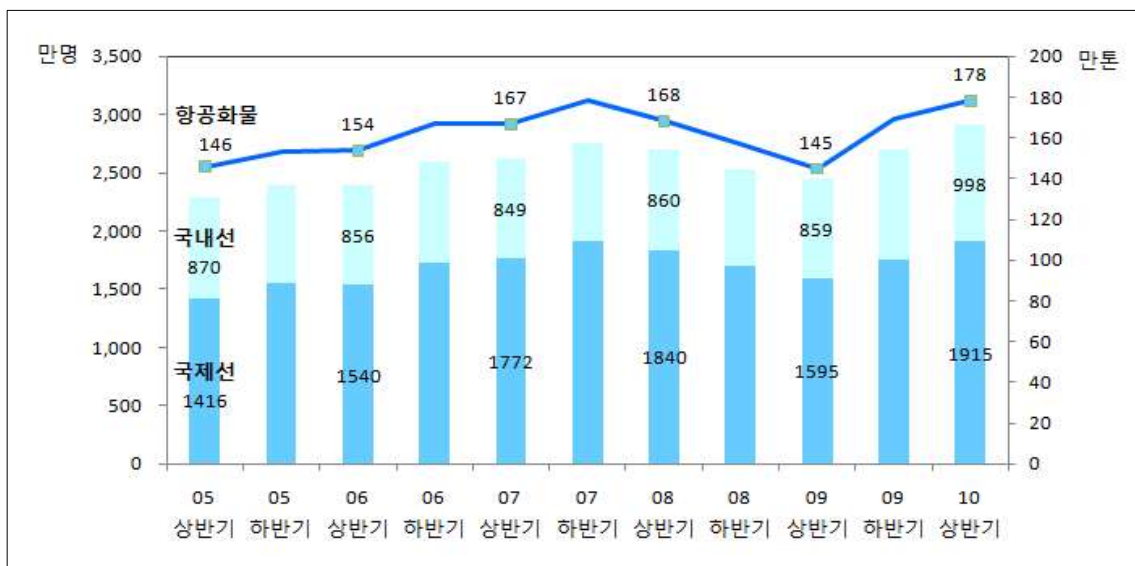
요약

2010년 상반기 국제여객 및 항공화물은 각각 전년대비 20%, 22.9% 증가
 IATA, 아시아항공시장 성장에 힘입어 전 세계 항공업계 25억 달러 순익 전망
 ICAO, 항공 수송량 6.4% 성장 전망

□ 상반기 여객 및 항공화물 수요 변화추이

- '10년 상반기 국제여객은 '08년 대비 4.0% 증가, '09년 대비 20.0% 증가한 19,145,601명 달성
- '10년 상반기 국내여객은 '08년 대비 16.0% 증가, '09년 대비 16.1% 증가한 9,975,141명 달성
- '10년 상반기 항공화물은 '08년 대비 5.9% 증가, '09년 대비 22.9% 증가한 1,780,885톤 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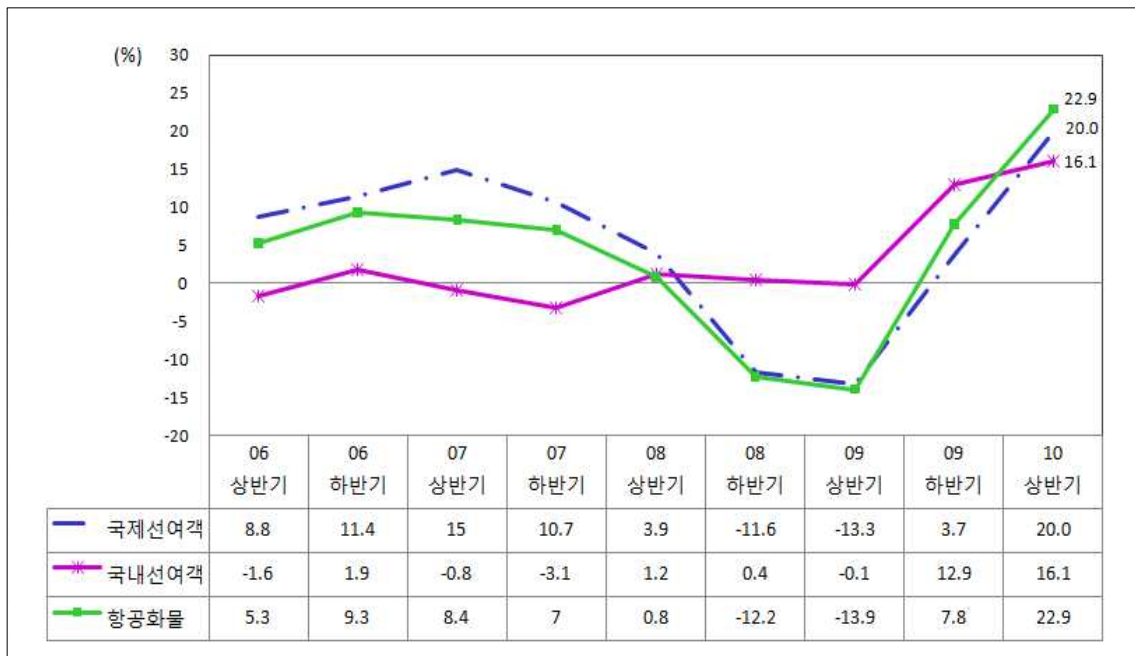
〈여객 및 항공화물 상반기 실적추이〉



□ 상반기 여객 및 항공화물 증감률 변화추이

- 국제여객 및 항공화물 증감률 추이는 '08년부터 하락하여 '09년에 최저점을 찍고 상승하는 유사한 형태인 반면 국내여객의 증감률 추이는 '08년 ~ '09년에 정체되다가 '10년 급격히 상승하는 형태를 보임

〈여객 및 항공화물 전년대비 증감률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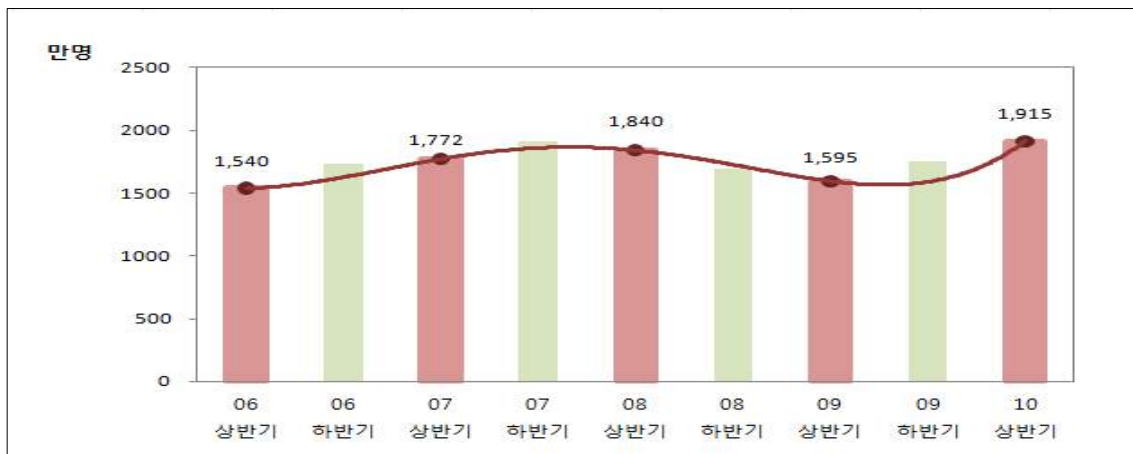


I. 2010년 상반기 항공 수송실적 분석

국제여객

- '10년 상반기 국제여객은 경기회복으로 인한 내국인 여행수요 증가, 환율 및 유가 안정 등으로 전년 동기대비 20% 증가, 경제위기가 본격화되기 이전인 '08년 대비 4.0% 증가한 19,145,601만 명을 달성하여 역대 상반기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 국제여객실적을 공항별로 살펴보면 김포·김해·제주공항은 전년 동기대비 각각 32.3%, 25.5%, 13.1% 증가하였고, 무안·청주·양양공항은 중국·일본 등 전세계 운항 증편으로 전년 동기대비 크게 증가하였다.

〈최근 5년간 국제선 여객실적 추이〉



최근 5년간 국제여객의 약 83%를 수송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경우 전년 동기 대비 18.5% 증가하였지만 '08년 대비 3.7%만이 증가하였다. 이는 인천공항의 실적이 경제위기 이전의 수준으로 회복되었지만 '08년 대비 59.1% 증가한 김포공항과 비교하였을 때 소폭으로 상승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그 원인으

로는 단거리노선 중심의 수요증가, 지하철 9호선 개통으로 인한 김포공항의 편리한 접근성 등으로 인한 효과로 볼 수 있다.

〈공항별 상반기 국제여객 실적〉

	2006	2007	2008	2009	2010	'09년 대비 증감률(%)
인천	12,974,229	14,793,320	15,185,149	13,289,768	15,746,826	18.5
김포	656,767	761,865	950,546	1,143,572	1,512,420	32.3
김해	1,106,810	1,284,566	1,465,578	1,144,403	1,436,458	25.5
제주	394,667	587,671	483,063	277,411	313,730	13.1
대구	140,255	154,636	145,290	56,279	58,507	4.0
광주	61,752	67,842	18,128	0	151	-
청주	66,140	69,487	89,371	17,412	37,177	113.5
여수	0	0	0	0	1,073	-
무안	0	0	66,658	25,804	37,932	47.0
양양	4,028	339	528	0	1,327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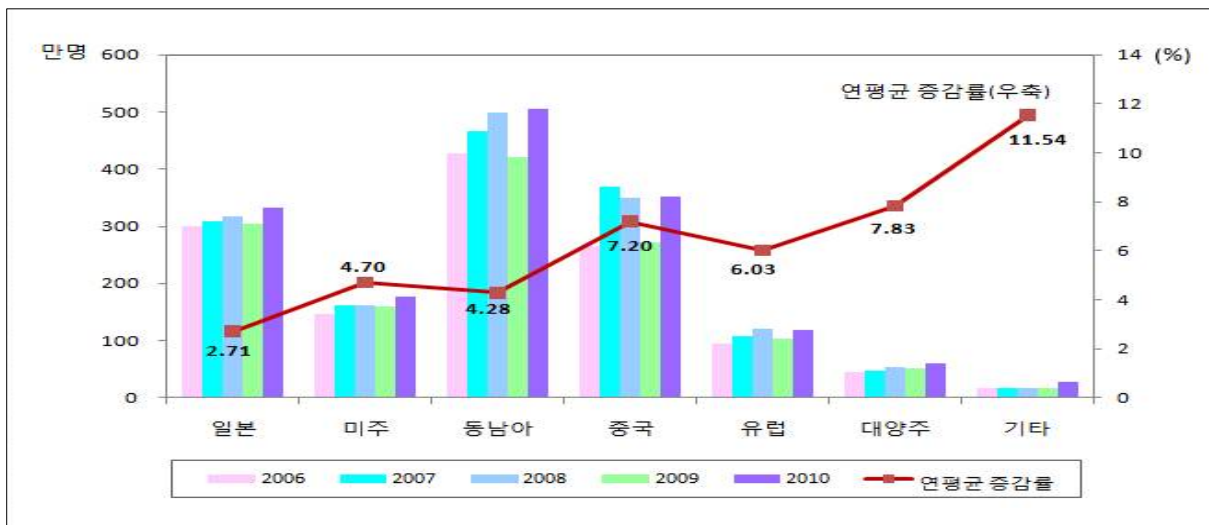
- 인천공항의 노선별 상반기 국제여객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전 노선이 전년 동기대비 평균 18.5%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특히 상하이 엑스포 관람, 월드컵 개최 등으로 중국(29.4%), 동남아(20.3%), 유럽(15.4%) 등의 증가가 두드러졌다. 또한 최근 5년간 인천공항의 노선별 상반기 국제선 여객실적 및 연평균증감률 추이 그래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노선에서 '10년 상반기 실적이 최대 실적이었으며,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감률은 중국 및 대양주가 높게 나타났다. 상반기 인천공항의 환승여객은 최근 5년간 꾸준히 증가하여 '10년 상반기에 2,631,376명을 달성하였으며, 환승률은 16.6%로 전년대비 -1.9% 감소하였다.

〈인천공항 노선별 상반기 국제여객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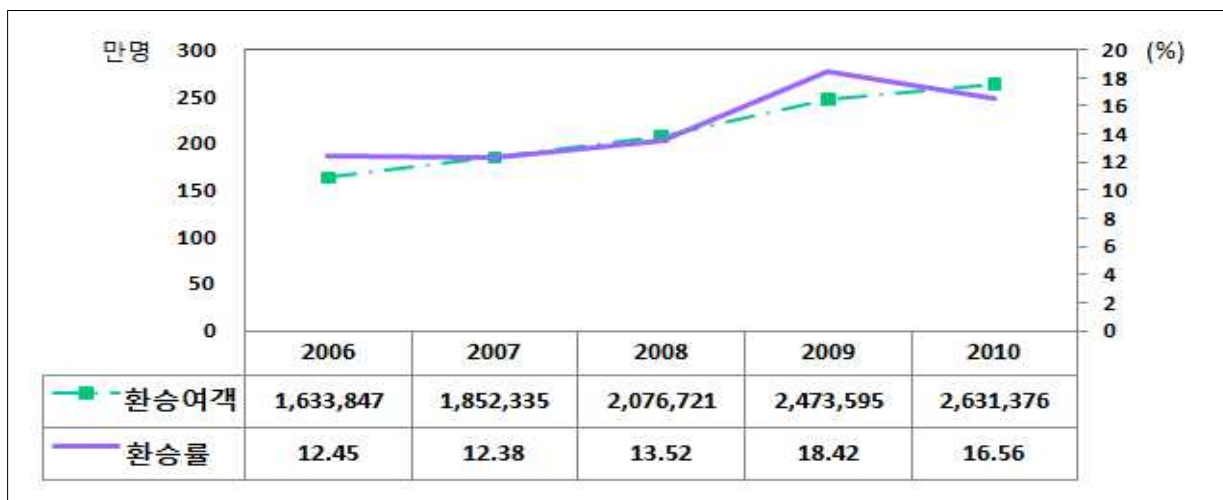
(단위 : 명)

	일본	미주	동남아	중국	유럽	대양주	기타
2009	3,049,347	1,593,543	4,208,699	2,720,253	1,033,106	516,227	168,593
2010	3,329,624	1,772,206	5,063,717	3,519,567	1,191,938	593,787	275,987
전년대비(%)	9.2	11.2	20.3	29.4	15.4	15.0	63.7

〈인천공항 노선별 국제선여객 실적 및 연평균증감률 추이〉



〈인천공항 국제선 환승여객 및 환승률 추이〉



국내여객

- '10년 상반기 국내여객은 저비용항공사(LCC) 공급 및 제주노선 단체관광객 증가 등으로 전년대비 16.1% 증가, '08년 대비 16.0% 증가한 9,975,141명을 달성하였다.

<최근 5년간 국내선 여객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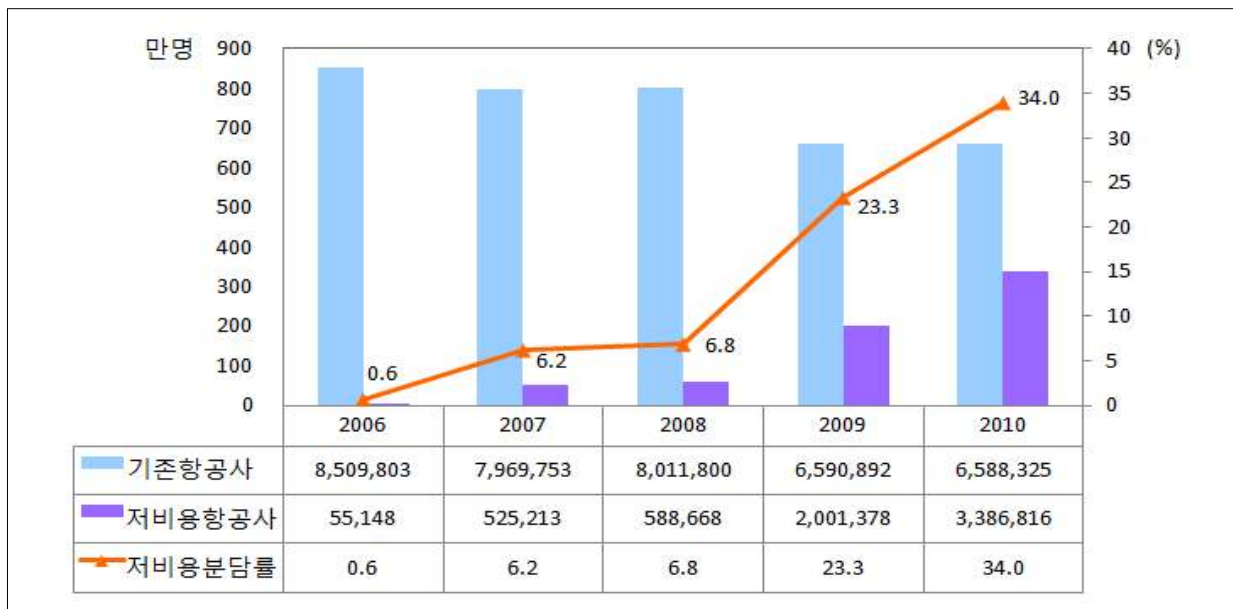
- 공항별로 상반기 국내여객 실적을 비교해보면 아래 표와 같다. 여객수요증가에 따른 항공기의 공급 확대, 저비용항공사 운항으로 인한 김해, 청주공항 여객 확대 추세로 인하여 국내공항의 실적이 전반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김포(16.1%), 김해(17.3%), 청주(24.9%), 제주(19%) 등은 꾸준한 증가세를 보였다. 또한 '08년 대비 약 24.8% 감소, '09년 대비 5.8% 증가한 무안공항의 경우 지난 7월 1일부터 무안~김포노선 운항이 중단됨에 따라 에어택시를 1일 2편 정기 운항을 추진함으로써 공항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해갈 계획이다.
- 저비용항공사의 상반기 국내여객 수송량은 3,386,816 명으로 전년대비 약 69.2% 증가하였다. 분담률을 살펴보면 '06년 상반기에 0.6%를 차지하였지만

‘09년 상반기에 23.3%, ‘10년 상반기에 34.0%로 대폭 상승하였다.

〈공항별 상반기 국내여객 실적〉

	2006	2007	2008	2009	2010	'09년 대비 증감률(%)
김포	3,028,327	2,977,859	3,046,538	2,994,018	3,476,658	16.1
김해	1,179,201	1,166,914	1,147,450	1,054,326	1,236,939	17.3
제주	2,755,508	2,761,284	2,885,701	3,082,856	3,668,446	19.0
대구	224,370	227,785	207,711	229,492	248,047	8.1
광주	369,533	356,908	340,223	325,679	330,307	1.4
청주	209,594	221,019	224,805	231,661	289,295	24.9
울산	304,353	307,008	300,275	249,123	260,321	4.5
여수	154,522	169,885	167,332	148,224	160,373	8.2
무안	0	0	6,536	4,648	4,916	5.8
사천	61,043	52,003	52,963	45,357	40,697	-10.3
포항	95,523	80,133	70,309	74,111	80,919	9.2
군산	41,763	32,195	26,040	35,436	41,901	18.2
원주	19,353	19,969	20,030	18,130	16,399	-9.5
인천	108,325	107,504	100,683	99,209	119,923	20.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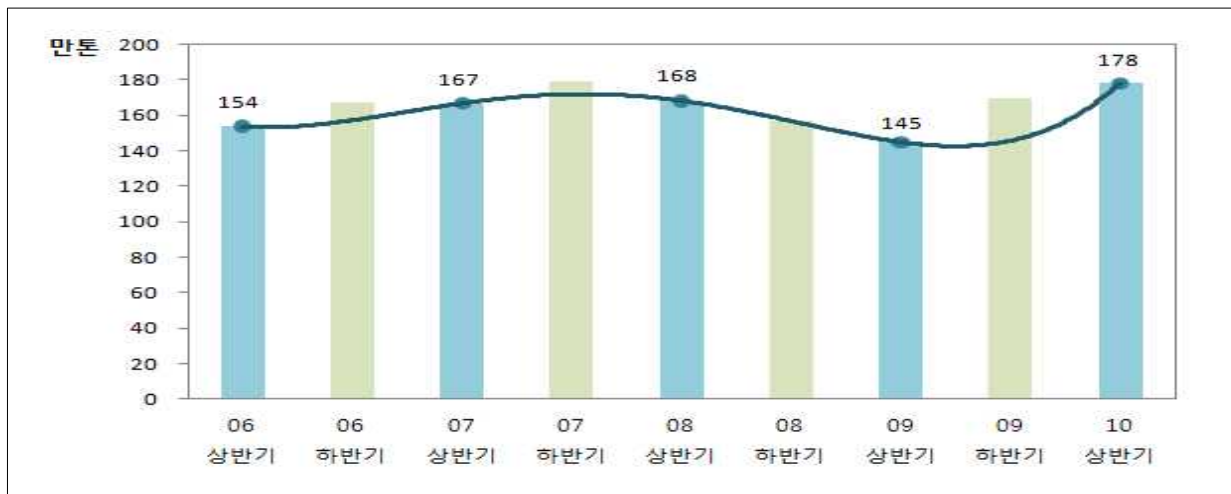
〈공항별 상반기 국내여객 저비용항공사 분담률 추이〉



항공화물

- '10년 상반기 항공화물 실적은 경기회복에 따른 반도체·IT부품 등의 지속적인 수송량 증가로 전년대비 22.9% 증가, '08년 대비 5.9% 증가한 1,780,885톤을 달성하여 역대 상반기 중 최대실적을 기록하였다.

〈최근 5년간 항공화물실적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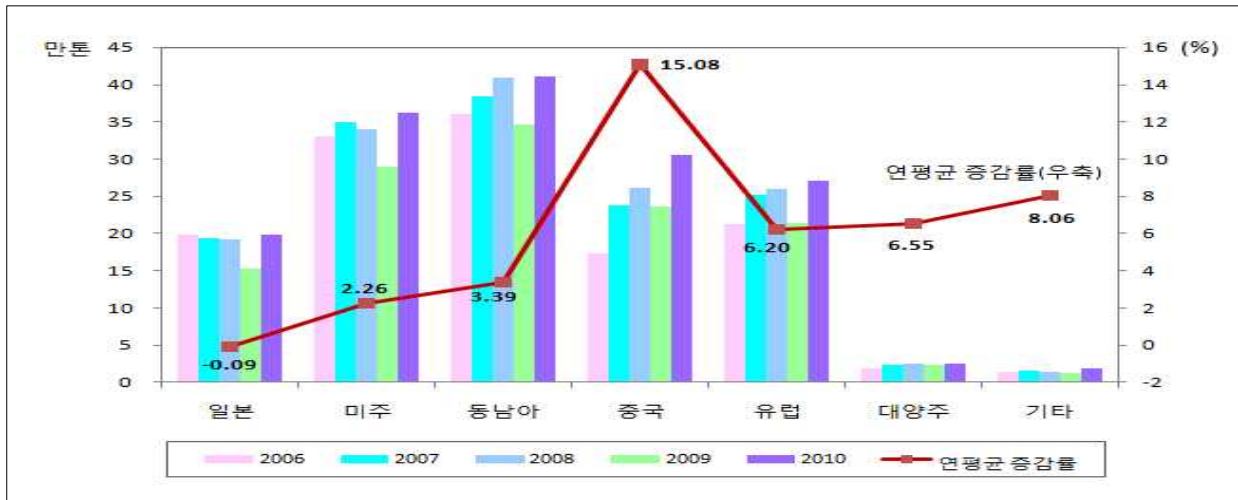
- (국제화물) 반도체·LCD·휴대폰 등 국내 IT 업체들의 수출물량 증가로 상반기 국제화물 실적은 전년대비 24.9% 상승한 1,647,267톤을 달성하였다. 국제화물수송의 약 97%를 점유하는 인천공항의 노선별 항공화물 실적을 살펴보면 아래 표와 같다. 대양주를 제외한 전 노선이 10% 이상 증가세를 보였고, 특히 일본·중국·유럽노선이 전년대비 각각 30.3%, 28.9%, 26.8%로 대폭 증가하였다. 또한 최근 5년간 연평균증감률을 구해보았을 때 가장 많이 성장한 노선은 15.08% 성장한 중국노선으로 나타났다. 환적화물은 58만 톤으로 전년대비 12.9% 증가하였다.

〈인천공항 노선별 항공화물실적〉

(단위 : 톤)

	일본	미주	동남아	중국	유럽	대양주	기타
2009	151,924	289,791	346,243	236,500	213,985	23,088	11,988
2010	197,983	362,029	411,796	304,801	271,262	24,427	18,602
전년대비(%)	30.3	24.9	18.9	28.9	26.8	5.8	55.2

〈인천공항 노선별 항공화물실적 및 연평균증감률 추이〉



- (국내화물) 큰 폭으로 상승한 국제화물과 달리 국내화물은 ‘10년 상반기 133,617톤으로 전년대비 3.3% 증가하였다.

〈국내항공화물실적 및 전년대비 증감률 추이〉



II. 2010년 상반기 항공 핫이슈

아이슬란드 화산 폭발

지난 4월 14일 아이슬란드 남부지역 에이야프얄라요쿨 지방에서 발생한 화산폭발은 유럽항공대란의 원인이 되었고, 전 세계 항공업계에 여파를 미쳤던 사건이다. 화산폭발로 화산재가 섞인 구름대가 바람을 타고 서부 및 중부유럽지역으로 이동하여 영국·아일랜드·노르웨이·덴마크 등에서 항공기 운항이 전면 금지되는 사태가 벌어졌기 때문이다. 구름 속에 섞인 작은 암석조각, 유리, 모래 등이 항공기엔진을 손상시킬 위험으로 인해 각국 정부에서 항공기 운항을 금지시켰고, 유럽에서 총 9만 5천 건의 항공편이 취소되어 700여만 명의 승객이 불편을 겪었다. 국제항공운송협회(IATA)는 세계 항공업계가 하루 4억 달러씩 손실을 입어 최초 분출시점부터 6일간 손실비용을 총 17억 달러로 추정하였으며, 이는 2001년의 9.11테러 때보다 큰 금액이었다.

아래 표는 아이슬란드 화산폭발로 인하여 우리나라 항공업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지난 4월 인천공항의 노선별 실적과 피해가 본격화 된 시점을 기준으로 한 결항자료를 나타내어준 것이다. 16일부터 20일까지 유럽노선 여객기와 화물기가 각각 86편, 57편이 결항되어 유럽노선의 여객 및 화물 실적이 각각 전월대비 8.2%, 15.2% 감소하였다. 특히 국제여객의 경우 전년 동기대비와 비교하였을 때 다른 노선에 비해 1.2%만 증가한 점은 상승세가 다소 둔화된 점을 보여준다. 하지만 국제여객 및 항공화물 모두 중국노선 등의 실적이 큰 폭으로 증가한 것과 함께 전 노선이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적으로는 유럽노선 결항으로 인한 영향이 미미한 수준이었다.

〈인천공항 4월 국제여객 실적〉

노선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09년 4월	531,824	603,660	543,661	288,629	138,316	53,048	78,832
'10년 4월	560,957	795,030	661,287	338,687	139,944	57,204	113,250
전년대비(%)	5.5	31.7	21.6	17.3	1.2	7.8	43.7
전월대비(%)	-7.5	11.7	1.9	4.0	-8.2	-10.4	11.9

〈인천공항 4월 항공화물 실적〉

노선	일본	중국	동남아	미주	유럽	대양주	기타
'09년4월	26,296	61,253	37,571	49,328	33,299	3,266	6,968
'10년4월	33,806	78,568	47,021	66,069	36,705	3,098	10,889
전년대비(%)	28.6	28.3	25.2	33.9	10.2	-5.2	56.3
전월대비(%)	-2.4	2.7	0.8	5.8	-15.2	2.3	13.5

〈인천공항 유럽노선 결항현황〉

(단위: 편)

일자	여객기	화물기	합계
4월 16일	10	5	15
4월 17일	18	13	31
4월 18일	23	14	37
4월 19일	21	13	34
4월 20일	14	12	26
합 계	86	57	143

이번 화산재로 인한 공역폐쇄와 항공업계의 손실은 흑백 양자택일 논리로 문제를 해결하는 항공시스템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즉, 유럽 항공시스템 하에서 화산폭발 후 사후 처리과정은 위험 가능성이 있다면 공역은

어떠한 위험평가 없이 그 가능성이 사라질 때까지 폐쇄되게 되고, 이는 비단 화산 재뿐 아니라 다른 어떤 영향력 있는 사건이 발생 시 언제든지 반복될 수 있다는 문제점을 제시해주었다. 이러한 항공시스템은 안전과 경제적 중요도가 커질수록 그 문제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이며, 공역의 안전 운영수준을 결정짓는 국제안전위험 체계를 확립해야 함을 우리에게 인지시켜주었다.

저비용항공사들의 약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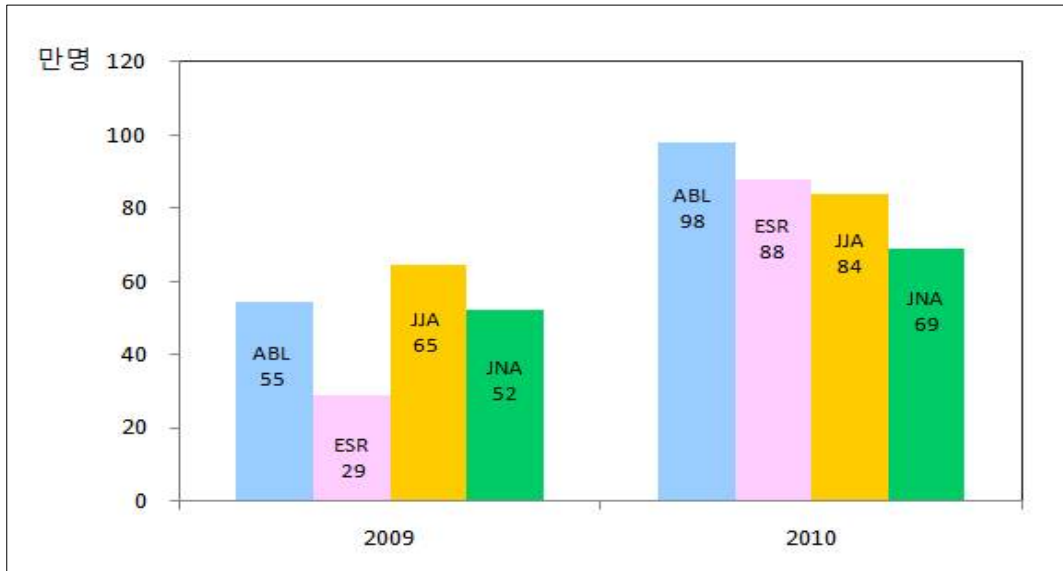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등 국내저비용항공사들이 국내노선을 중심으로 '10년 상반기 흑자비행을 함으로써 규모의 경제를 실현하였다. '05년 한성항공으로 시작된 국내 저비용항공업계는 개인사업자에서부터 대형 항공사를 모회사로 둔 형태까지 발전하여 '08년 이후 단거리 국제노선까지 확장하고 있으며, 금번 상반기 흑자전환을 계기로 저비용항공사들의 더욱 큰 변화가 예상된다. 특히 지난 2년 동안 경영난으로 운항을 중단한 국내 최초 저비용항공사 한성항공이 10월부터 김포~제주 노선운항을 재개할 예정이어서 치열한 경쟁이 예고되고 있는 실정이다.

〈저비용항공사 '10년 상반기 영업실적〉

	매출액	영업손익
제주항공	664억원 (81%증가)	-91억원 (28%감소)
에어부산	550억원 (101%증가)	20억원 (흑자전환)
진에어	494억원 (91%증가)	21억원 (흑자전환)
이스타항공	464억원 (360%증가)	-26억원 (적자축소)

* 각 항공사 잠정집계, () 안은 전년 상반기대비 증감률

〈저비용항공사 상반기 국내여객 실적〉



〈저비용항공사 취항노선 현황〉

	제주항공	에어부산	진에어	이스타항공
국내노선	서울~제주 부산~제주 청주~제주	서울~부산 제주~부산	서울~제주	서울/인천~제주 청주~제주 군산~제주
국제노선	김포~나고야 인천~오사카 인천~키타큐슈 김포~오사카 인천~방콕	부산~후쿠오카 부산~오사카	인천~방콕 인천~괌	(전세기) 청주~연길 인천~후쿠시마 인천~아사히가와 인천/제주~고치 인천~코타키나발루 인천~다낭 청주~푸켓

□ 진에어, 에어부산 취항 2년 만에 흑자전환

저비용항공사 중 ‘10년 상반기에 흑자전환을 한 항공사는 진에어와 에어부산으로, 두 항공사 모두 대형 항공사를 모회사로 둔 특징을 지니고 있다. 위의 저비용

항공사 '10년 상반기 실적 표를 살펴보면 에어부산은 20억원, 진에어는 21억 원을 달성함으로써 사상 처음으로 흑자를 냈으며, 제주항공은 91억 원 손실을 기록하였지만 매출이 크게 증가함으로써 적자폭을 줄였다.

또한 위의 저비용항공사 상반기 국내여객 실적 그래프를 살펴보면 이스타항공의 국내여객 실적이 29만명에서 88만명으로 206.1%로 대폭 상승한 점은 저비용항공 업계의 후발주자인 이스타항공이 '10년 상반기 26억 원 손실을 기록하였지만 발전을 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더불어 '09년, '10년 저비용항공사 국내여객 실적 순위를 살펴보면 저비용항공업계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과 변화를 예상할 수 있다.

□ 흑자전환 1등 공신은? 제주노선!

금번 상반기 저비용항공사들의 실적이 증가한 가장 큰 요인은 경기회복 등으로 인한 국내외 여행객 증가이다. 특히 국내노선의 경우 저비용항공사들의 분담률이 '05년 단지 0.6%에 그쳤던 것이 '10년에 34%까지 성장한 점은 저비용항공사들의 흑자전환 비결이 국내노선에 있음을 보여준다. 국내노선 중에서도 수학여행, 올레길 관광, 중국인 관광 등으로 전년 상반기대비 3배 이상 급증한 제주노선은 저비용항공사의 공급을 모두 흡수함으로써 저비용항공사들의 실적개선을 이끌었다.

□ 단거리 국제노선의 확대

저비용항공사들이 최근에 단거리 국제노선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것 또한 경영실적을 개선하는 데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진에어가 하반기에 인천~클라크(필리핀), 인천~마카오를, 에어부산이 부산~필리핀 노선 운항을 추가로 계획하고 있고, 이스타항공 역시 '09년에 말레이시아 쿠칭노선을 부정기 국제선으로 취항한 이래 '10년 7월 23일 인천~코타키나발루 정기노선을 취항을 공표함으로써 저비용항공시장을 더욱 활성화시키고 있다.

〈참고표〉 반기별 항공수송실적

〈반기별 국내선 여객실적 추이〉

(단위 : 천명)

년도	상반기 국내선 여객	전년 동기대비(%)	하반기 국내선 여객	전년 동기대비(%)	계	전년대비 (%)
1990년	5,306	28.4	5,758	19.5	11,064	23.6
1991년	5,898	11.2	6,355	10.4	12,253	10.7
1992년	7,234	22.7	7,320	15.2	14,555	18.8
1993년	7,524	4.0	8,026	9.6	15,550	6.8
1994년	8,953	19.0	9,453	17.8	18,406	18.4
1995년	10,493	17.2	10,516	11.2	21,009	14.1
1996년	11,430	8.9	12,137	15.4	23,567	12.2
1997년	12,721	11.3	12,857	5.9	25,579	8.5
1998년	9,516	-25.2	9,989	-22.3	19,504	-23.7
1999년	10,273	8.0	10,871	8.8	21,145	8.4
2000년	11,102	8.1	11,413	5.0	22,515	6.5
2001년	10,643	-4.1	11,169	-2.1	21,811	-3.1
2002년	10,517	-1.2	10,731	-3.9	21,248	-2.6
2003년	10,650	1.3	10,730	-0.0	21,380	0.6
2004년	10,034	-5.8	8,859	-17.4	18,893	-11.6
2005년	8,704	-13.3	8,454	-4.6	17,158	-9.2
2006년	8,565	-1.6	8,616	1.9	17,181	0.1
2007년	8,495	-0.8	8,353	-3.1	16,848	-1.9
2008년	8,600	1.2	8,390	0.4	16,990	0.8
2009년	8,592	-0.1	9,469	12.9	18,061	6.3
2010년	9,975	16.1				

〈반기별 국제선 여객실적 추이〉

(단위 : 천명)

년도	상반기 국제선 여객	전년 동기대비(%)	하반기 국제선 여객	전년 동기대비(%)	계	전년대비 (%)
1990년	4,474	13.7	5,153	18.5	9,626	16.2
1991년	4,675	4.5	5,595	8.6	10,271	6.7
1992년	5,518	18.0	5,739	2.6	11,257	9.6
1993년	5,322	-3.6	6,330	10.3	11,651	3.5
1994년	6,209	16.7	6,867	8.5	13,076	12.2
1995년	6,910	11.3	7,693	12.0	14,603	11.7
1996년	7,633	10.5	8,360	8.7	15,992	9.5
1997년	8,195	7.4	8,403	0.5	16,598	3.8
1998년	6,533	-20.3	7,571	-9.9	14,104	-15.0
1999년	7,830	19.9	8,920	17.8	16,750	18.8
2000년	9,176	17.2	10,277	15.2	19,452	16.1
2001년	9,915	8.1	10,436	1.5	20,351	4.6
2002년	10,670	7.6	12,047	15.4	22,717	11.6
2003년	9,207	-13.7	12,252	1.7	21,459	-5.5
2004년	12,452	35.2	14,478	18.2	26,931	25.5
2005년	14,157	13.7	15,526	7.2	29,684	10.2
2006년	15,404	8.8	17,303	11.4	32,707	10.2
2007년	17,718	15.0	19,149	10.7	36,867	12.7
2008년	18,403	3.9	16,938	-11.5	35,341	-4.1
2009년	15,954	-13.3	17,559	3.7	33,514	-5.2
2010년	19,146	20.0				

〈반기별 화물실적 추이〉

(단위 : 천톤)

년도	상반기 화물실적	전년 동기대비(%)	하반기 실적	전년 동기대비(%)	계	전년대비 (%)
1990년	435	11.4	525	10.4	960	10.8
1991년	463	6.5	524	-0.2	987	2.8
1992년	521	12.6	558	6.4	1,079	9.3
1993년	566	8.7	657	17.8	1,224	13.4
1994년	659	16.4	760	15.6	1,419	15.9
1995년	776	17.7	837	10.2	1,613	13.7
1996년	833	7.4	949	13.3	1,782	10.5
1997년	967	16.1	1,051	10.8	2,018	13.2
1998년	873	-9.7	961	-8.6	1,834	-9.1
1999년	982	12.4	1,131	17.7	2,113	15.2
2000년	1,130	15.1	1,254	10.9	2,384	12.8
2001년	1,090	-3.6	1,205	-3.9	2,295	-3.7
2002년	1,203	10.4	1,307	8.4	2,510	9.4
2003년	1,233	2.5	1,399	7.0	2,631	4.9
2004년	1,445	17.2	1,533	9.6	2,978	13.2
2005년	1,460	1.0	1,529	-0.3	2,989	0.4
2006년	1,538	5.3	1,671	9.3	3,209	7.3
2007년	1,667	8.4	1,787	7.0	3,455	7.7
2008년	1,681	0.9	1,570	-12.1	3,252	-5.9
2009년	1,449	-13.8	1,693	7.8	3,141	-3.4
2010년	1,781	22.9				